NEWS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강기정 "금호타이어 고용 안정·새 공장 건립 최선"

박균택 의원과 서울서 경영진 면담…피해 복구 등 논의
금호측 내달 '피해복구 로드맵' 발표…시 "행정적 지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새 공장 건립 및 노동자 고용안정 등 조속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동자를 면담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17일 서울 금호타이어 본사에서 정일택 대표이사 등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균택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 고용 불안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복구 및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면담에서는 화재 피해 설비 복구 일정, 공장 재가동을 위한 조건, 휴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방안, 공장 이전 계획과 부지 용도변경 등 주요 사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시는 금호타이어와 협력을 통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복구 및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화재 피해를 넘어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금호타이어가 7월 초 발표하기로 한 로드맵에 새공장 건립 계획을 분명히 밝힐 경우 광주시, 국회,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호타이어 이전지원단'(가칭)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18일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더블스타 본사를 방문해 금호타이어 대주주 측과 '화재피해 복구 등 향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뒤, 7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지역민 염원과 애정을 잘 알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줄곧 밝혀준 데다 회사 발전방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공장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는 지역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새공장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광주시는 고용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복구 및 공장 이전 준비 등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금호타이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금호타이어 새공장 건립에 대해 금호타이어 경영진·노조와 소통은 물론 정부에도 지원 요청하는 등 앞장서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017년부터 노사를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는 등 관심을 쏟아왔다.

강 시장은 경영진 면담에 앞서 지난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황용필 대표지회장 등 금호타이어 노조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고용 불안 해소, 협력업체 피해 대책, 공장 복구 및 이전 필요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와 중국 더블스타 경영진 간 면담 내용을 공유했다.

강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첫 공식 회의인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달 현장을 찾았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공장을 새로 짓는 문제가 크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韓 국가경쟁력 '27위' 7계단↓
기업 효율성 23위→44위 '뚝'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지난해 기준 통계 등과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69개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해(20위)보다 7위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등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여건과 사회 여건에서는 하락했다.

개인소득세의 근로 의욕 고취 부문은 54위에서 43위로, 법인세 부문은 58위에서 43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지난해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가 작년보다 1계단 올라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면 '대통령 G7참석'서 계속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서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대신 위 안보실장은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른 나라 정상과 가진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면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과 도-아프리카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317억 확보

총 1조3000억 발행…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기대
정부 지속 건의…여수·무안 특별지원 포함돼 국비 증액

전남도는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3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8868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1조300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총 4000억원)에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여수시) 사업비로 260억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이후 정부에 추가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일반지원 284억원, 특별지원(여수시·무안군) 33억원으로 당초 신청보다 57억원 증액된 총 31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관광객 급감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은 무안군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이 불확실했던 연초부터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비 175억원을 투입,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했었다.

시군에서도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응해 1~4월 총 4245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됐다. 이같은 선제 조치와 국비 확보가 맞물리면서 올해 전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회복의 든든한 마중물"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정부의 전국민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 등 2회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내버스요금 인상폭은…'광주온' 설문조사
오늘까지…현 1250원서 1500원·1600원·1700원 제시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광주시가 파업 사태와 별개로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광주시는 소통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시내버스 파업 관련 시민 의견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운전원 임금 인상률, 시내버스 요금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문 취지를 공지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시는 지노위 조정에서 압축된 2%(사측 제안), 3%(지노위 중재안), 8.2%(노조 제안) 등 세 가지 안 중에서 운전원의 적절한 임금 인상률을 묻고 있다.

해당 설문에는 대구 454만원, 광주 459만원, 부산 499만원, 서울·울산 515만 원 등 2024년 기준 특·광역시 운전원 평균 임금과 더불어 최저시급 인상률(1.7%), 광주 물가상승률(2%), 공무원 봉급 인상률(3%) 등이 참고 정보로 덧붙였다.

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적정한 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으로 현행 1250원, 1500원대(6개 특·광역시 수준), 1600원대, 1700원대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요금 인상 시기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중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광주시의 이번 설문조사는 노조가 지노위 중재안인 3% 수준에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고질적인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요금 인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도, 자연재해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접수

전남도가 고수온,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자료 분석 결과 올여름 바다 표층수온은 평년보다 1도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서는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 품목은 전복(종자 포함), 넙치, 해상가두리어류, 뱀장어 등으로 6월 말까지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